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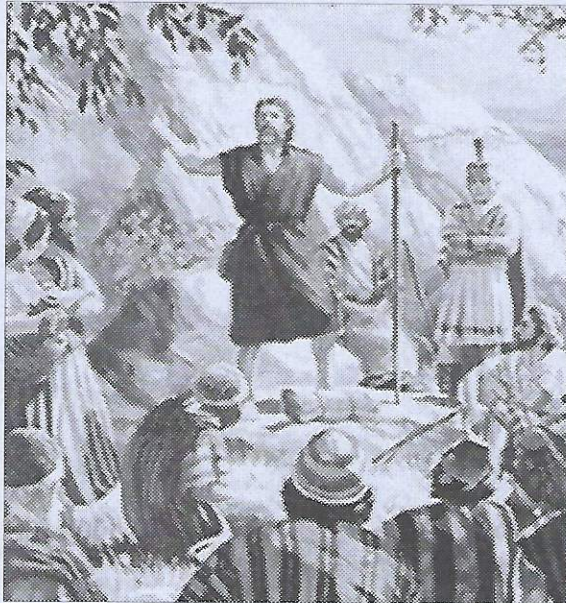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2주일

제36권 2호(다해) 2015년 12월6일

[묵상]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소리>

신앙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신자라면 누구나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문제는 주님에 대해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이들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열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다.
세상 모든 사람들 안에 하느님이 오셔야 한다.

하느님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이들이
하느님을 모시도록 하는 일이 바로 신앙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자라는 이름이나, 해야 할 임무가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랑'이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애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오전	8:30
	특전미사(청년미사)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오전	7:30
	학생미사(영어)	오전	9:30
	낮 미사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저녁 미사후
	레지오 마리아에	오전 10:00
	예비자 교리반	오후 8:00
	성령기도회	오후 8:00
	울뜨레아(4째주)	오후 8:00
금요일	성소후원회(첫목요일)	오후 8:30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에	오전 10:00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오전 10:00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오후 6:00
	배론청년회 모임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에	오전 중
	아도라떼 성가대	오전 8:30
	글로리아 성가대	오전 9:00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00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오후 3:00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 요셉회	오후 1:00
	4째주 - ● 사목회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한국 교회의 역사

2-1. 초기의 신앙 공동체(1784-1801년)

이러한 탄압에도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오히려 조직을 다져 나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1786년 가성직 제도(假聖職制度)를 설정하기까지 하였다. 가성직 제도는 성품성사를 받지 아니한 신자들이 성직자의 고유한 업무까지 수행하던 비합법적 제도를 말한다. 이를 가성무집행 제도(假聖務執行制度)라 하기도 한다. 고해성사와 견진성사 그리고 미사 집전은 성직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를 미처 알지 못한 당시 신자들은 미사와 고해성사 등을 집전하였다. 이 가성직 제도 아래에서 이승훈은 교회의 으뜸가는 지도자가 되었고, 모두 10여 명의 신자가 신부로 추대되었다. 가성직 제도는 교회법으로는 올바른 일이 아니나, 교회 조직을 갖추어 신자들의 신앙 생활에 도움을 주고 선교를 강화해 보려는 소박한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가성직 제도는 1789년경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천주교 교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면서 가성직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에 관해 북경 주교에게 문의한다. 1790년에 도착한 답변에서 북경 주교는 가성직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조선에 선교사 파견을 약속하는 한편, 조상에 대한 제사를 금지하였다. 이로써 조선 교회는 선교사를 맞이하는 기쁨과 조상 제사 문제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갖게 되었다. 조선 왕조에서 장자(長子)에 대한 제사 상속권 강화를 기반으로 하여 양반 사족들이 본격적으로 사대 봉사(四代奉祀)를 하게 된 시기는 17세기 이후다. 조상 제사는 당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던 효심의 자연스런 표현으로, 사대 봉사는 양반 신분의 상징이다. 사족들은 사대 봉사를 통해서 팔촌친(八寸親) 공동체를 형성하여 변동하는 사회에 대처해 가고 있었다. 이렇듯 조상 제사는 양반 가문의 사회적 결속과 존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 때문에 조상 제사 금지는 양반 사족 출신 신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조상 제사 포기는 양반으로서 명망과 특권을 버리고, 가문을 존립시키는 사회적 기반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천주교 신자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앞서서 양반 문중의 박해가 심각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이때 사대봉사를 하던 양반층 신도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새롭게 터득한 천주교 신앙을 버리고 자신이 원래 속한 유교 문화로 재편입해 가면서 초기 교회 창설에 중요한 역할을 한 양반들도 탈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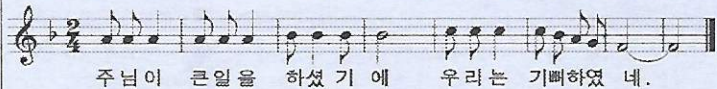
< 계속 >

토요 특전 미사	(연)이용식 베드로
	(생)정진옥 노엘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이현호 요한, 고준희 제임스, 후버트 최, 진은란 아네스, 최병덕 바오로 & 최효선 안젤라, 조지 G. 가보라, 이우천 스테파노, 이사범 로벨토 & 이안드레아, 이종수 마틴,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 변해경 올리안나, 현지영 요셉, 김기준 안젤라, 윤정숙 마리아미카엘라, 장석천 요셉 & 고중옥 모니카, 노정순 페로니카, 유선님 & 이흥만, 반치우 안셀모 & 반순례 안나, 김복님 마리아 & 김자옥 요셉, 허동수 루스 & 허정자 레지나
	(생) 홍석인 체칠리아, , 홍광선 요셉 & 이호미 엘리사벳, 이정희 소피아, 신애숙 레지나, 김명숙 루실라 & 김태수 프란치스코, 민원희 안나, 이남현 막시모 & 이정아 리디아, 이정은 사피엔시아, 최열자 안나, 최석원 안드레아 & 박민아 로셀리나 & 최술 체칠리아, 오세원 아타나시오, 황윤재 베드로 가정, 노태순 마리아 & 김진영, 김현오 니콜라스, 이상훈 사무엘, 박지상 아우구스틴 가정, 김임식 마누엘라 수녀, 오창근 베드로 신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바룩서(Prophet Baruch) 5,1-9

화답송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집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제 2독서 필리피서(Philippians) 1,4-6.8-11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굳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복음 루카(Luke) 3,1-6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봉헌	124	123	123
성체	270	255	255
파견	280	286	281
	401	133	133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세상 달력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교회 달력은 새로운 전례력을 시작합니다. 마치 ‘묵은 시간’이 마쳐질 때, ‘새로운 시간’이 도래한다는 숨은 의미가 내포된 듯, 세상의 달력과 교회의 달력이 절묘하게 엮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림 제2주일에는 곧 오실 예수님을 위해 준비 하라는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루카 복음사가가 전하는 세례자 요한의 설교에서 눈에 띄는 점은, ‘장소’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광야’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 정도로 언급함에 반해, 요한이 설교한 ‘때’에 대해서는 상세한 묘사를 곁들인 것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 십오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래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르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루카 3,1-2)

황제의 시대부터 영주까지 ‘때’를 언급하고, 이어서 ‘하느님 백성 이스라엘의 머리’로서 ‘대사제들’의 때를 언급함으로써 ‘이교도의 세계’와 ‘하느님 백성의 세계’, 이 두 세계의 역사를 아우르는 자리에 세례자 요한의 사명 수행,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명 수행을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자 요한의 설교에 관한 이사야 예언서 40장을 인용하면서, 마태오와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너희는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로 요한의 설교를 마

치는 데 반해, 루카 복음사가는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구절까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대목은 ‘모든 살덩어리가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로 직역됩니다. 이 ‘모든 살덩어리’라는 히브리식 표현은 ‘노아의 홍수’(창세 6) 이야기에서 주 하느님께서 당시의 세상이 타락해 있음을 보시고 그 타락한 세상을 없애시려 할 때 사용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세례자 요한의 설교에서 ‘모든 살덩어리가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표현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길은 ‘죄인을 멸망시키는 징벌’로써가 아니라,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려는 하느님의 자비의 길임을 암시해 줍니다.

‘모든 살덩어리가 구원을 보리라’는 오늘의 성경 표현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찬미 받으소서’라는 환경과 생태에 관한 회칙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 자연을 포함한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일그러져가고 무너져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초대와 말씀처럼 들립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더 나아가 만물이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도록 우리 각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돌아보라는 초대의 말씀이 담겨있는가 봅니다.

◆ 정순택 주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이호미 엘리사벳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박진수 스테파노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혜경 레나타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프로렌시오	신덕례 테레사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김금자 테레사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동 1반

◆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매년 주일학교 행사로 진행되었던 성탄 예술제를 올해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즐길 수 있는 본당 규모의 이벤트로 진행하려 합니다.

이번 겨울페스티벌은 전 신자 분들을 초대하며, 103위 주일학교 학생들의 공연과 함께 여러 가지의 재미있고 알찬 부스들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부스들과, 타 단체 홍보 부스, 그리고 어른 분 들만을 위한 부스도 마련할 예정이니, 본당 신자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날짜: 12월 19일 토요일
- 시간: 오후 5시 - 오후 10시
- 장소: 103위 성당 친교장
- 가격: FREE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LA 골롬바의 집에서 인보 성체수도회 수도자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지내실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 장소 : 248 S. Mariposa Av. L.A. 90004
- 담당:공 데레사 수녀
- ☎213-389-7760 / 213-785-1147

◆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 수련안내(9개월간)

- 일시 : 2015년 9월 ~2016년 6월
- 주관처 : Loyola Institute for Sprituality
- 장소 : 로올라 영성센터
- 480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 문의 : 전 아네스 ☎(213)507-1144

◆ 타성당 판공성사일정

- 12월 7일 : 평화의모후성당
- 12월 9일 : 순교자성당
- 12월 10일 : 성요셉성당
- 12월 11일 : 성아그네스성당
- 12월 14일 : 성토마스성당
- 12월 15일 : 성바실성당
- 12월 16일 : 성프란치스코성당, 마태오성당
- 12월 18일 : 성삼성당, 바오로성당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송년모임으로 대체 12/09(수) 오후 6시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김민수 바오로 12/12(토) 오후 6시
	3	윤미애 안나 560-7120	토런스 한식당(송년회) 12/18(금) 오후 7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 크리스티나 490-9662	박근식 미카엘 294-9444 12/04(금)오후 7시
	2	윤경옥 설비아 909-557-7490	윤화경 바오로 316-7819 12/12(토) 5시
	3	박명순 안나 968-7600	방미숙 마리아 12/11(금) 10시 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 방지거 12/18(금) 오후 7시 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데레사 12/14(월) 11시
	3	김유미 사비나 738-5305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12/12(토) 오후 6시 30분
토런스 북 정병옥 율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정동호 하상바오로 12/14(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중 다니엘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권태만 실베스텔 749-3151 12/12(토) 6시 30분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최재은 베드로 997-9006 12/18(금)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배진영 프란치스코 12/11(금)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12/11(금) 7시 성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최수지 카타리나 12/18(화) 10시 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회의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	1시
--------	----

[햇볕 한줌] 물소리

어느 한 유명한 수도자가 토굴을 지어서 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수행자와 지인들이 자주 찾아오자 그 수도자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 조용히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일 높은 산골짜기에 침거해 있자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여인이 나물을 캐러 왔다가 물었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 왜 혼자 와서 사십니까?” 수도자가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공부 좀 싹컷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되물었습니다. “물소리는 안 시끄럽습니까?” 그 수도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소리, 새소리는 안 시끄러운가?’ ‘이 세상 어딘들 시끄럽지 않는 곳이 있겠는가?’ 산꼭대기에 숨는다고 시끄러움을 벗어 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있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자신이 쉬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수도자는 다시 하산하여 누가 뭐라 하건 자신의 일에 정진하여 덕망 높은 수도자가 되었습니다. ‘물소리, 새소리는 안 시끄럽습니까?’라는 말이 평생의 스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바뀐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있는 자리가 바로 꽃자리인 것입니다.

◆ 가톨릭 굿 뉴스

나의 천성은

천성이 착하다거나 본성이 못됐다는 표현은 현재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 일터.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으로
천성과 본성을 들먹이곤 하지 않던가.
그러나 천성이 착하고
본성부터 못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지금 착하거나 못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지금의 내 모습이며
내 근간까지 흔들려 버릴 수도 있더군.

-이영 아네스-

[교리 상식]

대림시기는 왜 매년 지낼까요?

☞ 교회는 대림 시기와 함께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교회달력으로 대림 제1주일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대림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대림 시기에는 예수 성탄 대 축일, 즉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데, 이 기다림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미 ‘이천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축하하고, ‘이번 성탄에 다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장차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예비 신자 궁금증 105가지 / 가톨릭출판사

속된 표현과 상식적인 반응

만일 당신이 교양 있는 말투로 “너 이빨 언제 교정했어?”라고 말한다면 교양 없는 짓에 해당한다. 이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눈을 눈썹, 머리를 대갈통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문이다. 이빨은 이의 속된 표현이며, 눈썹은 눈의 속된 표현, 대갈통은 머리의 속된 표현이다.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빨이라는 단어를 서슴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지...

만일 당신이 반독재를 외치는 사람에게 “너 빨갱이지?”라고 말한다면 개념 없는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셈이다. 국어사전에는 빨갱이를 공산주의자의 속된 표현이라고 정의한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주의이고, 자본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이다. 민주주의-독재주의는 권력과 법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구분이고, 자본주의-공산주의는 경제체제의 기본방침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른 구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편들어도 빨갱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독재를 외쳐도 빨갱이라고 몰아붙인다면, 네 가지 개념을 섞어서 혼용하는, 즉 함부로 말해버리는 개념 없는 경우가 되고 만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에서 기인한다. 동족끼리 싸운 한국전쟁이라는 참상은 어떤 이성으로도 설명이 불가능 적대개념을 만들고 말았기 때문이다. 과연 이런 현상은 극복할 수 없는 일일까?

전례주기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이다.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하고 불의한 세력들이 날뛰니 종말론적인 사고에 젖는 시기이다. 그래서 옛 것들이 씻어지고 새로운 미래가 생성되어질 작은 기적을 간절히 바라본다. ◆ 조옥종 신부 / 로사리오의 집

사도 바오로의 믿음의 친구, 티토

사도 바오로는 많은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그들을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사도 바오로의 선교활동에 큰 도움을 주었던 여러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티토입니다. 티토는 그리스 사람으로 사도 바오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도 바오로의 명령에 따라 두 번 코린토 교회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는 크레타섬에 전교를 갔다가 교회를 잘 돌보기 위해 그곳에 남았습니다. 티토는 유능하고 결단력 있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원만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왜 그를 크레타섬에 남으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티토 1,1-5

티토는 사도 바오로에게 있어 신임이 두터웠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전교활동에 항상 티토를 동행했지요. 신심이 두터운 티토는 사도 바오로에게 손발처럼 든든한 협조자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 사이였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티토를 신앙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자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춘 이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교회지도자의 중요한 자질과 자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티토 1,6-16

티토의 가장 돋보이는 활동은 코린토 교회의 갈등을 잘 해결한 것입니다. 당시 코린토 교회는 여러 파로 갈라져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 교회의 분열을 무척 걱정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사정을 수습하기 위해 사도 바오로는 급히 코린토를 방문하였으나, 결국 이 여행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 교회를 위해 티토에게 무엇을 부탁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티토 2,1-15

티토가 코린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열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티토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티토는 자신이 나서지 않고 사도 바오로의 뒤에서 도움을 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티토는 사도 바오로의 가장 믿을만한 제자였습니다. 참다운 친구이며 제자인 티토와 함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오로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티토는 크레타섬에서 주교가 되어 여생을 보내다가 93세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유해는 나중에 베네치아의 성 마르코 성당에 옮겨졌다고 합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사실 감독은 하나님의 ()으로서 ()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하지 않고 겸사리 ()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나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티토 1,7)

“()을 받은 대로 진정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전한 가르침으로 ()을 격려할 수도 있고 ()들을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티토 1,9)

[기도묵상]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모두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황제와 걸인, 종과 주인도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 성 아우구스티노 -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	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가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1-855-388-4141 Los Angeles, CA 90006

써니사이드 장의사

www.sunnysidecremation.com FDR #2224

이민 1세로 열심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며 살아 오신 분들은 품격있는 서비스로 예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세와 다리역할을 하며 영어와 한국어로 새로운 장례문화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린 "마이스토리"를 100부 무료로 제공합니다.

24시간 LA: 213-500-8434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chools.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 (213)842-8366

JKKim@LACatholicCemeteries.org

IF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시문*마리안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파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 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 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제마-

한 국 장 의 사

LA(FD74), 놀워(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StateFarm

Heather Chong (정혜경)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얼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